



완산소방서,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캠페인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관련해 전주 신중안시장(태평5길 38)에서 「화재예방 3대 전기용품 안전사용 및 화재안전용품 설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8일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공무원, 노후19인전센터, 전주완산의용소방대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장관객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방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매일 정기적으로 대형화재 차단과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진행되는 '안전하기 좋은날(D-day)'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불조심 강조 캠페인'의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배부 및 화기취급 주의 당부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용품 설치 권장 △화재 발생 시 119다매체 신고요령 홍보 및 교육 △불조심 홍보 포스터 배부 및 게시 등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무주지점, 보건위생용품 100상자 기탁

전북은행 무주지점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면서 보건위생용품 100상자(2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전북은행 무주지점 이경호 지점장은 황인홍 군수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돌아오는 만큼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품을 전달한다"면서 "주민들에게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작으나마 힘을 보탠다"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보건위생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의회, 오수면 가축분뇨 처리장 공청회 참여

임실군의회의(의장 이성재) 의원들이 사업의 현장을 찾아 나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4일에는 오수면 지역향안사업대책위원회(회장 김용일)에서 개최한 오수면 가축분뇨 처리장 증설과 관련 공청회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주민과의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오수면 주민은 물론 오수면 하루의 삼계면 주민까지 참석하였으며, 오수면 가축분뇨 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제안되는 등 많은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왕정동, 찾아가는 복지 행정 실천

남원시 왕정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 7일, 동장과 함께하는 1일 1가구 방문시 발굴된 명지 아파트에 장애인 1가구의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대상 가구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노부모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한편 욕조로 인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욕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왕정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예산과 시 주민복지과 사업비를 지원받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공간을 확대해 주는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실천한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욕실공간이 좁아 딸을 씻기 힘들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넓고 깔끔해서 편안하게 씻길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왕정동 왕정동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민의 목소리에 답 할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건강장애학생 위한 지역사회 이해

전북대병원 · 한누리병원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한누리병원학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을 경험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이해 현장체험학습'을 지난 4일 실시했다.

한누리병원학교는 장기통원치료를 요하는 건강장애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병원학교로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에는 건강장애학생들과 형제자매들을 포함해 7명의 아이들과 어린이병원학교 2명의 인솔교사 및 어린이병원 담당 공공행정팀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또 체험활동은 지역 특산물인 수제 초코파이, 비빔밥 만들기 체험과 전통 한복을 입고 전주경기전을 방문해 옛 건물들을 살펴보고 전통놀이를 체험했으며,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통해 이색적인 경험을 쌓고 현장체험학습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옥마을 내의 숙소를 제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통 한옥을 느끼며 추억을 쌓았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학년 군과 전주 금영초등학교, 전주 팔복초등학교, 전주 우이중학교 등 여러 학교의 학생들



이 참여해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다양한 학교, 학년 군이 입교하기 때문에 관계 교류의 장을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질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참여해 있던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전라북도교육청, 병원 관계자,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유희철 병원장은 "한누리병원학교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이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 부귀농협 이성우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진안군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 조합원인 이성우(62), 이희경(64)부부는 8일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이날 농협중앙회에서 진행된 시상식은 정미경 농협진안군지부장, 김영배 부귀농협 조합장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씨 부부는 고령화된 지역사회에 베푸는 기계화, 규모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수도와 이외에 다양한 원예작물에 대한 농업 경험과 작물의 품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이다.

이성우 농업인은 농협 대외원과 이장을 겸하고 있으며, 다양한 농업자식이나 정보들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등 선도 농업인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힘쓰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호국원, 묘소지킴이 해단식 행사 가져

대한민국전통문화유족회는 지난 7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국립묘지 지킴이 봉사활동 해단식을 가졌다.

국립묘지 지킴이 활동은 2005년 시작되어 매주 국립묘지를 방문해 묘역 정화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현충탑 참배, 헌화, 묘역정화 활동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故육군일병 시정섭 등 5위의 무연고 묘소를 참배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도농교류 활성화에도 앞장서는 농협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주비전대, 국제개발협력 캠페인 펼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학생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캠페인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사업 일환으로 'Make a better world-국제개발협력과 NGO' 라는 테마로 운영됐다.

전주비전대는 앞으로도 아이디어 공모전,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홍보, 교류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해증진사업 책임을 맡은 전주비전대학교 김미선 사업단장은 "홍보 부스에 참여한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서의 NGO 및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 치매안심센터, 실종 예방 감지기 무상 지급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송문주)에서는 치매환자 실종 시 조속한 발견 및 복구를 위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감지기를 자체 구입하여 무상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신청자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추가로 구입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50여명의 대상자에게 무상 대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40여대의 배회감지기를 오는 11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자이다. /김제=곽태 기자

농협중앙회 '함께하는 조합장상' 시상식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이 7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가 수여하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농가소득증대, 농협의 균형발전, 농협이념까지 확산 등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농협발전이 기여한 공로한 큰 조합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박 조합장은 남원농협 고숙통합센터 설립과 전국 유례없는 행정과의 협력을 통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및 노인복지관을 남원농협 고숙통합센터 내에 유지하면서 전국의 행정 및 농협에 귀감이 된바 있고 창의적 사업추진 및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정됐다.

수상 소감에서 박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신뢰와 사랑으로



로 남원농협을 이용한 조합원과 고객 및 임직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도농교류 활성화에도 앞장서는 농협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신용빈 백운농협 조합장

신용빈 진안백운농협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의 '11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함께하는 조합장상'은 농협이념 확산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1,114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계몽구매, 도농상생, 창의적 사업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백운농협은 2015년도 신용빈 조합장 취임 이후 경제사업 실적 170%, 상호금융예수금 240%, 상호금융대출금 340%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농협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2018년 4월 성수농협과의 합병을 성사시켜 자산규모 530억원에서 2021년말 기준 1,500억원 규



모의 농협으로 성장시켰다.

또 지역 내 산재해 있던 사과, 수박, 배추 공산출하조직을 육성해 연간 1,700톤을 판매하고 있다. 수박을 진안의 대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묘종 공급에서 정식 및 수확단계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 1,100톤의 수박을 공동선별·판매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와 농협 판매 사업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출신 가수 임도희, 공연 성금 100만원 전달

남원시는 지난 7일 가수 임도희 씨와 가요TV 전북회 회장 문일동 씨가 시청을 방문해 성금 1,013,500원을 전달하고 갔다고 밝혔다.

50대 늦깎이 가수로 데뷔한 임도희 씨는 가요TV 전북방송 전속가수로, 매년 공설시장, 용남시장 등에서 길거리 공연으로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이날 기부한 성금은 역시 지난 6일 남원예천에서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길거리 공연을 진행해 모은 수익금이다.

한편 방미자 주민복지과장은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나날이 살기좋은 남원이 되어가는 것 같다. 추운 날씨를 녹이는 가요TV 전북방송의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건강관리협회, '학대피해아동 희망터치 클릭' 기부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창립 58주년을 맞아 지난 7일부터 학대피해아동 희망터치 클릭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인원 건협회장은 "희망터치 클릭기부 캠페인은 홈페이지(www.kahpor.kr)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팝업 이미지 내 '무료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1,000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지원에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동참할 수 있으며, 최대 30,0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아동보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되어 학대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치료비, 보육비, 학습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인원 건협회장은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협과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